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인사 잇달아

신임 교육부장에 서봉 스님
신임 기획국장에 원묵 스님


서봉 스님


원묵 스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인사가 잇달아 이뤄졌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9월 7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신임 교육부장 서봉 스님(前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봉 스님은 대원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사미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해인사 승가대학 부교수와 해인총림율원 율원장,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 해인사성보박물관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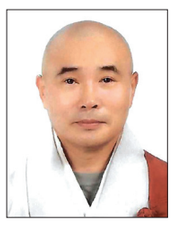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 신임 기획국장 원묵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묵 스님은 도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1년 사미계를 수계(사미계)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총무원 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 제17대 중앙종회의원, 광주 선덕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옥천암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 송지희 기자

종회의원 직능대표 탄원 스님 선출돼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서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보궐선거에서 탄원 스님(용인 대덕사 주지, 사진)이 당선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원행)는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0차 회의를 열고 직능대표 문화 분야 중앙종회의원에 단독 출마한 탄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선출 직후 탄원 스님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 확산에 회의 · 행사 '줄 취소'

불교계 9월 16일까지 대면행사 금지 조치

조계종 원로 회의 25일 연기
교구본사주지協 회의 취소돼
승가고시 등 종단 일정 차질
교계 학술행사 · 축제도 영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9월 16일까지 소속 사찰과 단체에서 대면 법회, 행사, 강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림에 따라 예정됐던 종단 행사와 회의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9월 8일 예정됐던 제64차 회의를 오는 9월 25일로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제64차 원로회의에서는 신임 원로의원 선출 및 대종사 · 명사 품계 심의 등의 안건을 다룬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에서는 원로의원으로 도후 스님과 지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또한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명사 법계 특별 전형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종사 특별전형에는 총 21명의 비구 스님들이, 명사 특별전형에는 2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추천됐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묵)는 9월 15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68차 회의를 취소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이 "9월 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사찰에서 대면 행사 일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종단 교육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9월 15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5급 승가고시를 잠정 연기했다. 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5급 승가고시의 경우 "대상자들이 합숙을 해야 하는 일정이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져 연기가 결정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9월 10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4급~6급 종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찰회계관리' 교육도 잠정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연기됐던 4급 승가고시는 이번에는 예정대로 9월 11일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진행됐다. 고시는 최대한 대면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응시 대상자를 나눴고, 철저한 예방 수칙 안에서 진행됐다.

불교계 학술행사와 축제도 연기 ·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처음 시작된 행복바라미 문화 대축전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7년 만에 취소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나 좋은날'은 9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축전 본 행사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다만, 상황을 주시하며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의 지역 문화제만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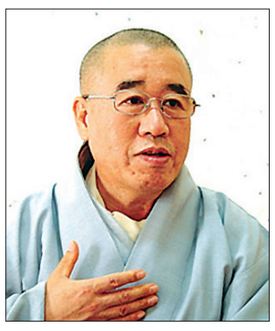
보조사상연구원은 9월 11일 서울 법련사 2층 교육관에서 제134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종단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대회를 잠정 연기했으며, 10월 9~18일 세종시 영평사의 구절초 축제는 취소됐다.

선학원, '송운 이사장' 체제 개막

법진 스님, 12년 임기 만료
인수인계 여부에 관심 집중
"폐쇄 아닌 소통" 변화 기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임기가 9월 17일 만료되면서, 선학원의 변화 가능성에 불교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3선 이사장이었던 법진 스님은 성범죄자 이사장이라는 오명으로 선학원의 대외적인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이었을 뿐 아니라, 창건주 · 분원장을 배제한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등으로 비판에 직면하는 등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9월 18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이사장 송운 스님 체제의 선학원에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 신임 이사장 송운 스님<사진>의 임기는 9월 18일부터 2023년 9월 17일까지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해 이취임을 공표하기 위한 대외적인 공식행사는 없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선학원은 9월 8일경 법진 스님 이사장 체제에서의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진 스님 이사장 체제가 12년간 지속된 만큼,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와 관련 다소 소극적인 형태로 인수인계가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뤄지더라도 이사회 및 사무국의 인적 구성 자체가 법진 스님 중심인 상황에서 당분간은 현상 유지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도 나온다.

선학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라면 신임 이사장 스님측이 인수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서야 하지만 선학원의 현재 구조상 송운 스님의 인수의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사회나 사무국 인적 구성을 볼 때 이사장이 바뀌어도 법진 스님의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인수인계를 온전히 받는다고 해도 독자적인 행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이사장 송운 스님 체제의 선학원에 대해 과거와 다른 행보를 기대하는 여론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창건주 · 분원장과의 소통으로 꼽힌다. 그동안 선학원이 정관조차 공개하지 않을 정도의 폐쇄성으로 논란을 빚어온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 · 분원장협의회장 자민 스님 역시 송운 스님이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관과 내부규정 공개 △전국분원장회의 개최를 통한 창건주 · 분원장 의견 수렴 △대중공의를 통한 재단 운영 방향 정립 등을 요청한 바 있다.

12년 간 지속된 법진 스님 이사장 체제를 끝내고, 송운 스님을 이사장으로 새롭게 거듭난 선학원이 향후 어떤 변화를 일궈낼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사진 오른쪽>이 9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 왼쪽>을 예방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직후 악수를 나누는 모습.

"코로나 방역 앞장선 불교계에 감사"

김제남 수석, 9일 원행 스님 예방서 밝혀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불교계의 적극적인 방역 및 감염예방 조치에 감사를 전했다.

김제남 수석은 9월 9일 취임 인사차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관 접견실에서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사찰 등 불교계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기여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는 불교계가 코로나 사태 이후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연기하고 연등축제를 대폭 축소하는 등 방역을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방역수칙을 지켰을 뿐 아니라, 전국 사찰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함에 따라 국내 종교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 감염 및 확진자가 전무한데 따른 것이다.

김 수석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한 가운데서도 불교계는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지도 하에 전국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널리 국민들에게 자비와 희망을 전해주신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당국 역시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특히 국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를 치유하고 통합해 나가야 할 시민사회수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불교계 관련 확산이 사실상 전무한 것은 전국 사찰과 신도들이 방역지침에 따라 노력해 준 덕분"이라며 반년 이상 어려움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 전국 사찰에 공을 돌렸다.

특히 원행 스님은 이날 전국 문화재 보유 사찰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 문화재 보유 사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해 온 전문 인력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관람료 급감으로 인해 인건비 충당이 쉽지 않은 사찰이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원행 스님은 "전국 사찰이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역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감수하고 있다"며 "다만 국가 지정 문화재와 관련한 대목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도 "불교계가 소유한 국가 지정 문화재가 70% 수준이고 조계종 소속 문화재 사찰만 75곳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가 지정 문화재를 상시 관리하기 위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동안 사찰에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감당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재 관람료가 급감하면서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실태를 전했다.

원행 스님 "숱사찰 협조 덕분"
문화재 사찰 국가지원 요구도

금곡 스님에 따르면 문화재 사찰의 경우 문화재 관람료의 30%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치하는데, 지난 반년간 사실상 관람료 수입이 끊기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님은 "사찰의 어려움은 감수하더라도 국가를 대신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력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나아가 차후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치금 부재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수석은 "불교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교계가 국민들의 안전과 희망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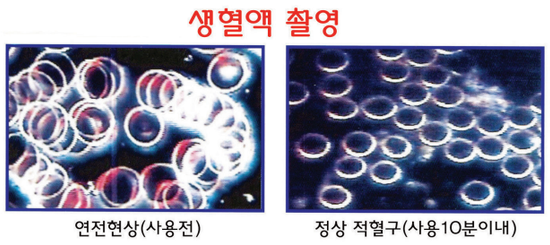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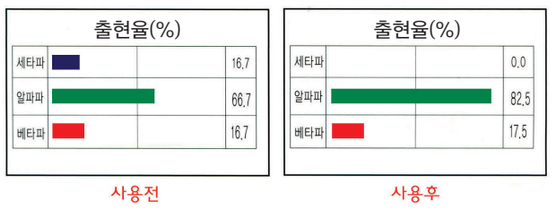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발뒷꿈치 각질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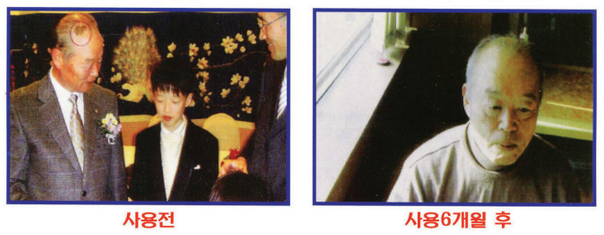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2개 = 3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주)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 삼강